

#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육아정책 방향 I

2020. **6**. **30**.(화) 15:00~17:0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협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육아정책 방향 I

| **일** 시 | 2020. 6. 30(화), 15:00 ~ 17:00

│**장 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일정표|

사회: 김은영 저출산·육아정책실장

| 시간          | 세부일정   |
|-------------|--|
| 15:00       | 개회   |
| 15:00~15:10 | 인사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br>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
|             | 주제발표   |
| 15:10~16:00 | 발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br>-유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br>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br>발표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 정책 방향<br>최은영 교수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
|             | 지정토론   |
| 16:00~16:30 | 토 론 김경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br>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16:30~16:5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 16:50~17:00 | 폐회   |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육아정책 심 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 아지원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을 대주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 아동돌봄 정책방향과 Post COVID19(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육아정책 등에 대해 총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방향 '을 주제로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국가가 인식을 같이하면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저출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고 그 규모가 GDP 대비 1%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에서 제시한 공보육·교육 이용률 40% 목표 달성과 함께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진두지휘 하고 계신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오늘 발표를 해주신 충북대 최은영 교수님과 연구소의 최은영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교원대 김경철 교수님과 연구소의 최윤경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고민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30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핵심인 육아정책에 큰 힘 보 태시고자 올해 첫 육아정책 심포지엄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선희소장님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그동안 여성과 가정에게만 맡겨놓은 육아부담을 국가 정책화하는데 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아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라는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육아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육아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고, 이후 육아정책연구소는 쉼 없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작년에 OECD가 밝히고 있는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OECD국가 중 우리는 모든 지표가 꼴찌거나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산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가족지출규모는 GDP대비 1.4%로, 2.4%인 OECD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사상 초유의 초저출산율 원인으로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교육, 즉 ECEC에 대한 투자만큼은 OECD 평균(0.7%)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GDP 대비 1.0%)이라고 밝혀 그나마 국가체면을 살렸습니다. 가족, 복지 분 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ECEC)과 관련된 성과만큼은 빠르게 발전했고, 이런 발전에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는 같은 해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육 아정책연구소가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지난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출산장려 에만 집중하면서 여성들에게 쉽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만 안기고, 0.92 라는 유래 없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며 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분야지원은 선진국수준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변하지 않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M자형곡선, 장시간 노동시간, 독박육아 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 그나마 있는 성과라 하는 육아정책이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은 십수년간 많은 변화와 확대가 있었으나, 늘 예산의 한계와 시장의 논리, 이해관계자간 충돌 등을 고려하다보니 여성경제활동이나 아동 최우선의 원칙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설계되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큰 방향의 전환을 꾀하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저출산 극복의 방향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과감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감도 면에서 우선인 육아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돌봄공백이 큰 문제인 현실에서 효과성과 충분성을 고려해가면서 거기에 더해 그동안 간과해온 시대적 요구인 아동최우선 원칙으로의 정립도 요구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보다 진일보한 제4차 기본계획을 위해 육아정책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제안이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분들과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6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

# 

| 주제발표 1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 -유이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 | 1 |
|--------|---------------------------------------|---|---|
|        | 최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

│ 주제발표 2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 정책 방향 ─ **17** 최 은 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시성토론 |                        | 31 |
|------|------------------------|----|
|      | 김 경 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 33 |
|      |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35 |

# | 주제발표 1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 -유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최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집행하면서 비용지원 확대를 주축으로 복지 차원의 정책 기본체계 정립, 제도 인프라 확대,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 (김종훈외, 201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 구현 (2006-2010년) ■ 목표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 (2011-2015년) **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2016-2020년) ■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u>폐</u>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21명(2014년) → 1.50명(2020년)」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49.8%(2014년) → 39%(202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2019)

|  | 제3차(2016~2020) 저를  |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수정안)  |  |  |
|--|--|---|--|--|--|
| 아이키우기<br>행복한 사회  | 비용<br>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시 <u>간</u><br>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  |
|  |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br>초등 입학기 전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 마련,<br>건강관리, 다자녀 지원, 출산 및<br>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br>출산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개편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r>남성 육아 참여 확대,<br>중소기업 일·생활 균형지원 확대,<br>육아휴직 개편 등 | 보육의 공공성 강화<br>(종일보육 내실화, 보육품질 향상 등),<br>유치원 <mark>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mark><br>가정내 돌봄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br>(지역 단위 양육·돌봄 종합 플랫폼 구축),<br><b>아동이 안전한 환경</b> 등 |  |  |
| 혼인, 출산 여부와 <b>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b> 비혼 등 불리한 법제 정비, 한부모 자립지원,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   |  |  |  |
| 청년, 여성, 아동이 일자리, 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과 여성의 안정된 삶,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 청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경력단절 예방,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교육혁신 |  |   |  |  |  |
|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  | "<br>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수정안).  |  |  |  |

#### 유아교육정책 개요

#### foreign and the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2010-2012년)

- 미래인적자원의 조기개발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에 국가적인 역량 결집의 필요성으로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를 비전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 제시
- ◎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로 구축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3-2017년)

- ♥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의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의무교육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추구
-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의 5가지 영역의 정책 제안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2018-2022)

-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을 공공선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 ♥ 4개의 추진과제와 10개의 세부 추진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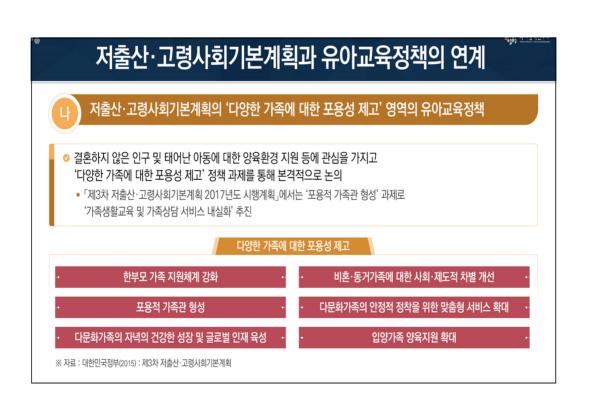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유아교육 혁신방안 주요 정책분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조성,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 제시 정책분야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저소들층 자녀에 대하 구공립 유치워 우선인한 기회 제공화대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⑦ 저소득추 유아에 대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 취원 시 어린이집 수준으로 학비경감 추진 다무하 가정이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무한 유치워 지정 화대 추진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다문화유아 언어발달 지원, 일반유아의 통합·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유아와의 유대 형성 및 편견 해소 지원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 학부모 대상 언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유아교육의 공공성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 공립유치원 내 특수한급 400개 이상 신·증석을 통해 통한교육 확대 교유 화대 우영 장애중도·중복 유아 등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통합유치원 설립·지원 강화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①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으로 신·증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단계적 확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유치원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 국가책임 강화 '18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발,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후, ① 공연형 사립유치원 도입 단계적 확대 건전한 사립유치원 ②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 육성·지원을 통한 민간경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하고, 위탁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전반을 공립에 준하게 운영 방식 다양화 공공성 강화 ③ 사립유치원의 소규모 설립자 위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학교법인 요건 및 지원책 마련 법인 전환 활성화 사립유치원 재인가 기간 단축 등과 병행 추진하여 현장 불편 최소화

|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  |                               |   |  |  |  |  |  |  |
|-------------------------------|--|-------------------------------|---|--|--|--|--|--|--|
| 정책분야<br>교실혁명을 통한              | 정책과제<br>2-1<br>영유아 대상<br>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 ① 유아 중심으로<br>방과후 과정 개편        | 내용<br>유아의 놀이, 휴식, 언어, 신체발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 다양화 등 탄력적 모델 개발<br>유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식 등 활용<br>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 지정 단계적 확대 |  |  |  |  |  |  |
| 유아중심의<br>교육문화 조성              |  | ② 공교육 혁신을 위한<br>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 영유아 대상 불법 학원 운영 지도·점검 내실화<br>"유치원 명칭"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 기관 처분 및 정보공개, 부당광고 금지, 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                                      |  |  |  |  |  |  |
| 교육공동체와 함께<br>유아의 건강한<br>발달 지원 | 3-1<br>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br>유아 교육환경 조성     | ① 학부모안심인증제<br>도입·운영           | 석면검사, 수질검사, 조리실 검사,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한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운영<br>화망 시·도교육청부터 자체 유치원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시범운영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확대            |  |  |  |  |  |  |
|                               | 3-2<br>학부모 참여 강화로<br>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 ① 학부모 유아교육<br>참여 활성화          | 학부모 간 상담, 소통을 지원하여 유아에 대한 부모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br>학부모가 참여 주도하는 수업기회 제공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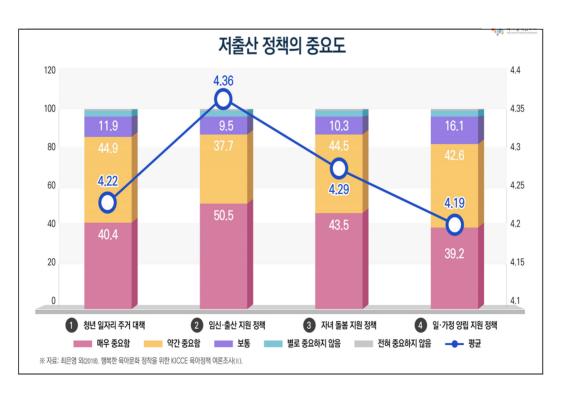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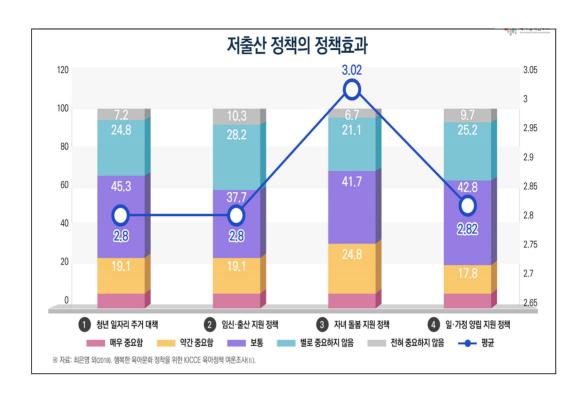
# 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유아교육정책의 연계 자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영유아 돌봄' 영역의 유아교육정책 •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 확대, 병설유치원 확충, 평가인증제 개선 등의 과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추진 • 제1,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중심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형 확대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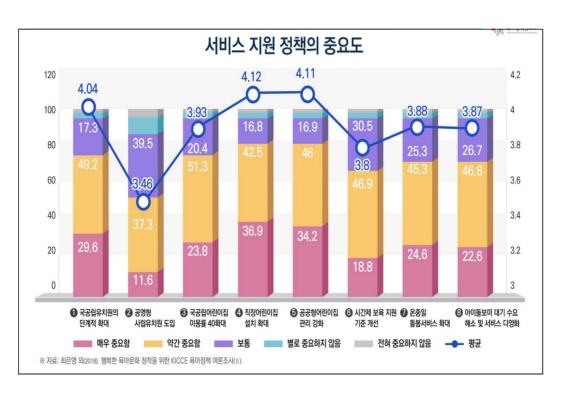
- ◎ 유아교육,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2016년에 최종적으로 교사·재원·관리 부처를 통합·정비하도록 계획
- ◎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등돌봄교실 확충
  - 돌봄 수요 대응 강화, 지역사회 내 돌 봄 여건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포함을 적극적으로 추진
- ◎ 민간 시장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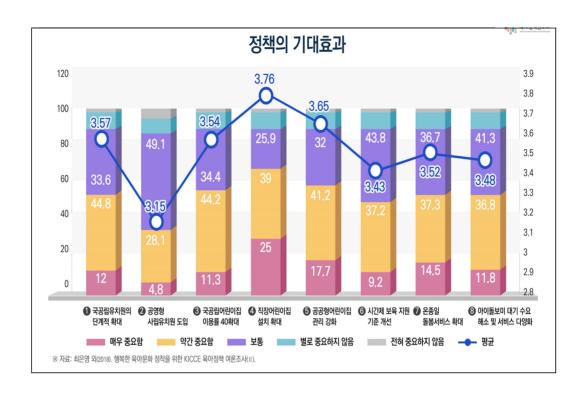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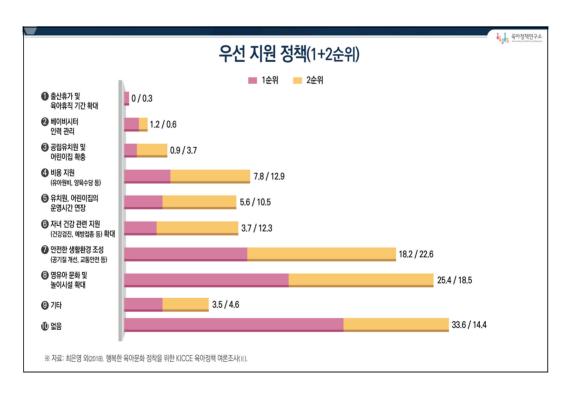












# 유아교육정책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가

#### '영유아 돌봄' 영역의 성과와 한계

성 과

- ◎ 돌봄영역의 지원 정책은 비용지원과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
  - (비용지원) 소득수준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2013년 만 0~5세에 대한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도입)
  - (인프라 확대) 돌봄지원 서비스 및 공급유형 다양화
     제2차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제3차에서 공공형 확대 추진
     제3차에서 초등돌봄교실 확충을 통해 초등돌봄공백 해소
- ◎ 돌봄사각지대 해소 노력 확대
  - 제3차에서 대학의 육아휴학제도, 전방부대 아이돌봄지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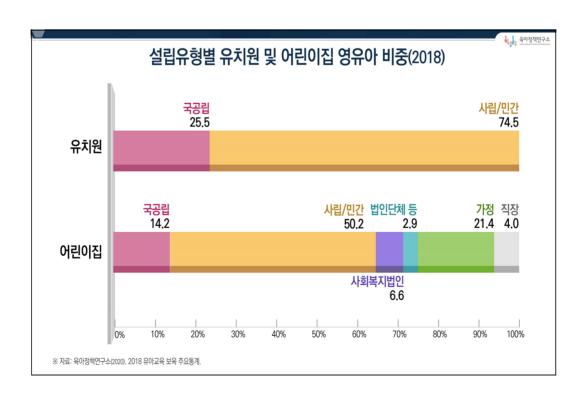
한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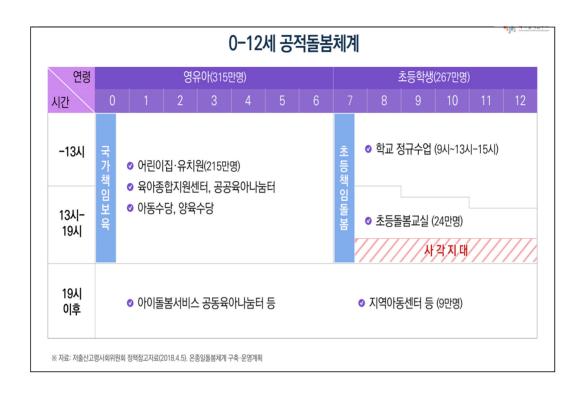
- ◎ 시설 서비스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은 상대적으로 미흡
- ◎ 국공립 중심의 확대 보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위주(제3차 기본계획)로 진행
- ◎ 제3차에서 계획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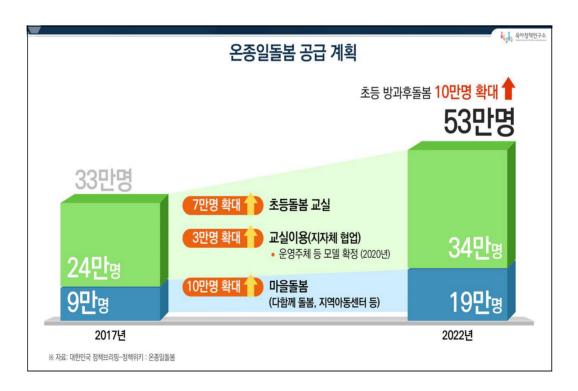
※ 자료: 김종훈 외(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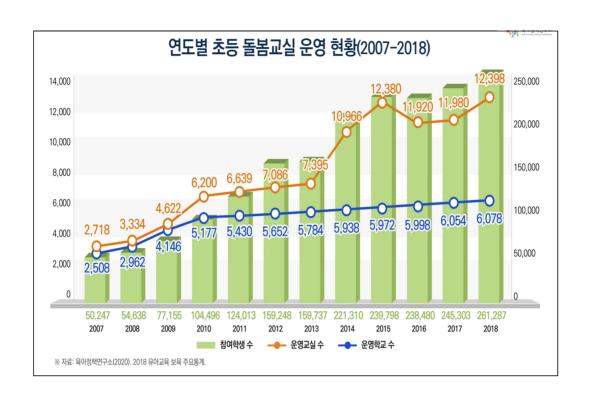
| 국공립 신증설 계획(2017~2022)   |                    |                    |                    |                    |                         |                      |         |  |
|---|--------------------|--------------------|--------------------|--------------------|-------------------------|----------------------|---------|--|
| 구분  | '17.4월             | '18                | '19                | '20                | '21                     | '22                  | '18~'22 |  |
| 국공립 학급수<br>(신증설 수)  | 10,484             | 10,981<br>(497)    | 11,481<br>(500)    | 12,011<br>(530)    | 12,541<br>(530)         | 13,084<br>(543)      | † 2,600 |  |
| 국공립 취학 아동수<br>(비중)  | 172,521<br>(24.8%) | 182,461<br>(27.4%) | 192,461<br>(29.8%) | 203,061<br>(32.0%) | 213,661<br>(36.0%)      | 224,337<br>(40%)     | ↑ 5.2만명 |  |
|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  | 2.12). 5년간 2,600학급 |                    |                    |                    |                         |                      |         |  |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안)  |                    |                    |                    |                    |                         |                      |         |  |
| 국·공립 국·공립   |                    | 사립                 |                    | 기존 개인              | 인 설립자                   |                      |         |  |
| 신증설   |                    | YE.                | 폐원 희망지             | <b> </b>           | Ī                       | <u> </u>             | 영       |  |
|   |                    |                    |                    |                    |                         |                      |         |  |
| 국·공립 신증설<br>+ 초·중·고 유휴 부지<br>+ 공공기관 시설 임대 • 장기임대                        |                    |                    | 용도<br>변경           | . 운영영              | 년 유도<br>사립유치원<br>동형 유치원 | 비영리'<br>또는<br>학교법인 신 |         |  |
|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10.25).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                    |                    |                    |                    |                         |                      |         |  |

|      |       | 유朿 | 원     |       |        |       |            | 어린(        | 이집     |        |          |       |
|------|-------|----|-------|-------|--------|-------|------------|------------|--------|--------|----------|-------|
| 구분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br>협동 | 직장    |
| 2010 | 8,388 | 3  | 4,498 | 3,887 | 38,021 | 2,034 | 1,468      | 888        | 13,789 | 19,367 | 74       | 401   |
| 2011 | 8,424 | 3  | 4,499 | 3,922 | 39,842 | 2,116 | 1,462      | 870        | 14,134 | 20,722 | 89       | 449   |
| 2012 | 8,538 | 3  | 4,522 | 4,013 | 42,527 | 2,203 | 1,444      | 869        | 14,440 | 22,935 | 113      | 523   |
| 2013 | 8,678 | 3  | 4,574 | 4,101 | 43,770 | 2,332 | 1,439      | 868        | 14,751 | 23,632 | 129      | 619   |
| 2014 | 8,826 | 3  | 4,616 | 4,207 | 43,742 | 2,489 | 1,420      | 852        | 14,822 | 23,318 | 149      | 692   |
| 2015 | 8,930 | 3  | 4,675 | 4,252 | 42,517 | 2,629 | 1,414      | 834        | 14,626 | 22,074 | 155      | 785   |
| 2016 | 8,987 | 3  | 4,693 | 4,291 | 41,084 | 2,859 | 1,402      | 804        | 14,316 | 20,598 | 157      | 948   |
| 2017 | 9,029 | 3  | 4,744 | 4,282 | 40,238 | 3,157 | 1,392      | 771        | 14,045 | 19,656 | 164      | 1,053 |
| 2018 | 9,021 | 3  | 4,798 | 4,220 | 39,171 | 3,602 | 1,377      | 748        | 13,518 | 18,651 | 164      | 1,111 |









# 유아교육정책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영역의 성과와 한계
- 성 가족의 형태를 불문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 는 방향 설정은 취약가족 위주의 과 접근 방식에서 탈피, 발전
- 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정책에 담긴 내용에 대한 고민 부족 계 '포용적 가족관 형성' 과제에 대한 2017년 시행계획 사업은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인데 내용이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다루고 있는지 의문
- 다 '일가정 양립 ' 영역의 성과와 한계
- ❷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 양성평등적 고용환경,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
  - ◎ 전반적으로 핵심 제도의 의미 있는 발전은 찾기 어려움

※ 자료: 김종훈 외(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 방향 영유아 시기에 충분히 휴식하고, 놀 수 있는 인적, 물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고려 지속·확대 국공립 확충 정책과 더불어 사립/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 고려 ②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은 공공성 제고,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1순위) 또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 공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상생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필요 ②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 불안은 여전 보완·추가 아동수당의 수급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검토 ③ 정부의 재정 현황과 정책수요자의 요구 고려 유치원 교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③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지원 등 고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 주제발표 2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 정책 방향

최 은 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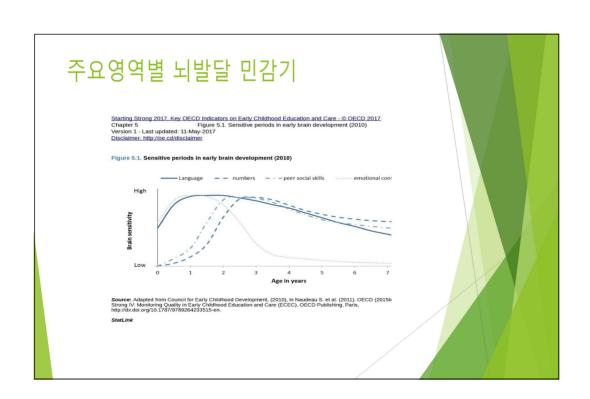


### 목차

- ▶보육정책의 기능과 위상
- ▶ 한국 보육정책 전개과정
- ▶제도의 딜레마와 불분명한 목표
-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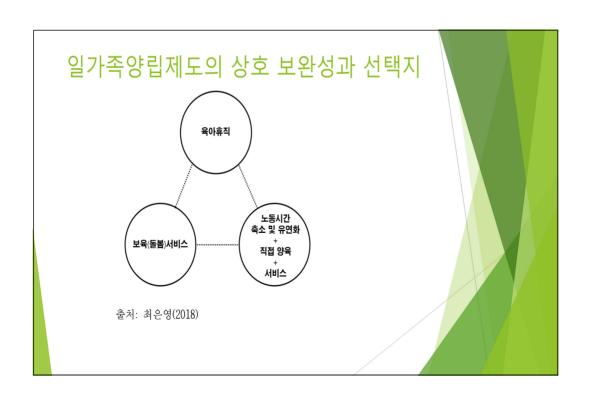
#### 보육정책의 기능과 위상 (OECD)

- ▶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잔여적 서비스.
- ▶ 20세중후반 여성취업지원, 부서통합을 통한 교육적 프로그램 강화, 가 치재(merit goods) 내지는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전환.
- ▶ 차츰 아동발달에 대한 강조가 추가되면서,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아동이 잘 자랄 환경조성, 아동에 대한 투자 등이 주목받음.
- ▶ Knapp(1984), Walker(1995) 등의 학자는 사회적 돌봄 분야는 민간시장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자원할당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공의 공급역할, 품질관리역할 등을 강조한 바 있음.
- ▶ 21세기에는 서비스의 초점이 확실하게 품질로 옮겨가고, 아동발달에 맞는 서비스 전달이 강조됨. 또래 사회성이 발달하는 2세무렵 이후 품질 높은 서비스 이용은 아동에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OECD 보육정책의 전개와 초점

- ▶ 지식중심 경제하에서 삶의 기회가 개인의 학습능력과 축적 된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성에 주목. 아동기부터 박탈과 소외, 배제로 부터 단절시키고, 양육기 여성(부모)의 노동을 지원하는 일가족양립 지향을 분명히 함.
- ▶ 제도의 결합방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휴직제도 활성화 및 부-모 평등이용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직접육아 지원-→ 아동발달 종합환경 구축



#### 한국의 정책전개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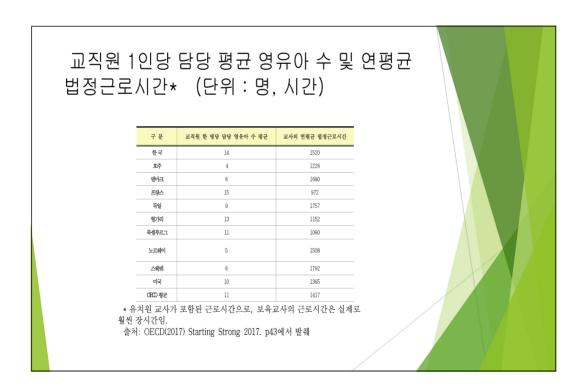
- ▶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보편 적 자격기준(eligibility) 설정.
- ▶ 품질향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도입. 일가정양립지원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OECD 국가와 상반된 선택.
- ▶ "서비스"인 제도를 "현금성" 급여인 것 처럼 왜곡 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 아동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높은 연령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더욱 더 부적절.
- ▶ 2012-13년 무상보육 시행으로, 이용자 재정지원이라는 틀에 갇힘.
- ▶ 권고사항이던 평가인증은 2019년 6월에서야 의무평가제로 전환.

#### < 사회보장 각 제도의 원리와 원칙 >

|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사회수당                                |
|----------|------------------------|--|---|-------------------------------------|
| 원리       | 위험분산/ 수지상응             | 부조                                     | 욕구충족  | 보편주의                                |
| 대상       | 근로자                    | (법정)저소득층                               | 수요가 있는자/ 서비<br>스 성격에 따라 우선<br>순위 적용가능 예) 시<br>간빈곤 가구, 유아<br>/ 수요에 따라 이용량<br>차등 가능 | 인구학적 기준                             |
| 원칙       | 역선택방지 강제가입<br>/ 사회적 연대 | 보충성/ 열등처우                              | 효과성/ 품질   | 적정성(액수 조정을<br>통해 수준 결정)             |
| 소득재분배 효과 | 있음                     | 강함                                     | 이용료 설정을 통해<br>조정가능  | 없음. 역진적                             |
| 한계       | 불안정 노동자 사각지<br>대 발생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br>충분성 논란/ 부양의<br>무자 기준 논란 | (예산제약하)서비스<br>포괄성, 연속성, 접근<br>성, 전문성 등 추가기<br>준 중 선택불가피                           | (예산제약하)보편주의<br>하에서는 액수 충분성<br>확보 불가 |
| 재원       | 사용자와 가입자의 보<br>험료      | 일반조세                                   | 일반조세+이용료  | 일반조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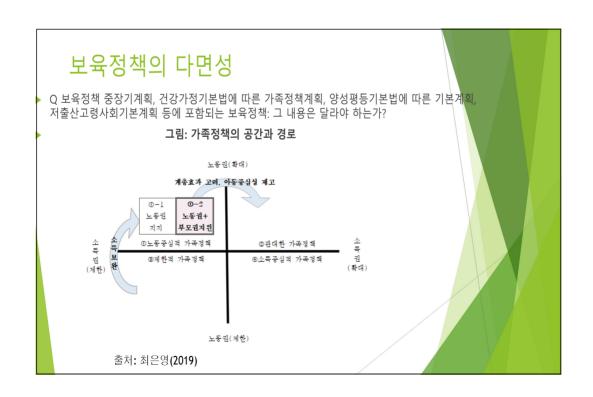


# 공급자에 대한 투자, 근로환경 고려 미흡 - 가족돌봄의 외주화(outsourcing)에만 치중. - 12시간 기관운영이 곧 근무시간이었던 보육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것은 2018년. - 대인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 노동의 특성, 수행환경과 여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 부족. 교사는 CCTV 감시를 받는 자로 자리매김. 정부(중앙지방) 이용자(가구,아동)



#### 어떤 방향으로?

- ▶ 점증주의가 아닌 shift 전략 필요.
- ▶ 사회서비스 원칙 충실, 아동에 대한 투자, 서비스 품질 확보, 돌봄노동 가치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방향전환을 이루어야.
- ▶ Dual earner-dual carer를 중심에 두고, 양육기 부모의 일-가족양립, 일-생활균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 ▶ 정책효과의 synergy 를 내려면, 한 방향을 향해야 함.
- ▶ 현재 제한적 가족정책에서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옮겨가되,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해야 함.
- ▶ 최종 종착점은 실수요자 중심의 품질높은 서비스, 종사상 지위와 노동형태와 관련이 최대한 적게 부모시간을 확보, 어린 시민인 아동에게 균등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수당과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일 것임.
- ▶ 여성의 노동권, 일가족양립 지원의 중요성, 아동성장환경의 조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노동권이 제한되는 경로보다 노 동중심적 가족정책 경로를 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함. \*세부적으로 노동소득만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힘든 계층에게는 소득보완 장치가 필요함.

### 과제: 돌봄노동 공유와 가치인정, 돌봄환 경 upgrade, 좋은 공간 만들기

- ▶ 부모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 ▶ 어린이집은 가정의 돌봄수요를 단순 수용하는 곳 → 안전하고 아동발 달 자극이 충분한 환경 and 실내/실외 모두 아동1인당 적정 space가 보 장되는 곳 and 적정노동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사가 활동 하는 곳 으로 바뀌어야 함.
- ▶ 아동 1인당 적정space는 OECD(2015)에서 서비스 품질을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항목이며, 감염병 시대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사1인 이 담당하는 아동수를 낮추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한국에서도 신경써 야 할 분야로 떠오름.

#### 세부과제

- ▶ 교사 대 아동비율의 경감필요, 특히 활동성이 급격히 늘어 나는 만3세만
-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영유아와 떨어져 별도공간 에서 갖는 점심시간이 7분에 불과, 휴게시간 37분 only.
- ▶ → OECD(2015, 2017)는 서비스품질과 교사품질에 이어 과 정품질을 강조: 교사와 아동간의 사회교육적 상호작용,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을 포괄.
- ▶ OECD 주요국은 아동의 변화와 발달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은 이 정보가 초등학교 입학후 학교와 공유됨.

#### 세부과제(계속)

- ▶ 아동과 접촉없는 (non-contact)시간 확보 필요. 예)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근무시간의 10%는 전문성 계발에 할당.
- ▶ Herzberg(1959)의 동기-위생 이론 등을 적용하여, 업무불만족 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 보상임금론(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에 근거하여, 소화불량, 방광염,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고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보육교사에게 추가급여분 설 계도 가능. 감염병 시대에는 위험수당 설계도 가능
- 교사 소진예방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 → 교 사의 좋은 상호작용 및 근속 강화
- ▶ 장기적으로 core 근무시간을 공유하는 교사 배치 필요.
- ▶ Q: 필요한 재원? 무상보육 재검토 필요함.

### 대안적 노동시간 레짐 (alternative work time regimes) - 장시간노동을 서비스로 떠받치는 틀에서 탈피, 시간정책과 동시 추진 필 Solidaristic gender High road High flexibilization Gender equity Low Liberal Male breadwinner flexibilization High Low Flexibility 출처: Mutari and Figart(2000), p.236

## 고진로 유연화 모델

- ▶ 고진로 유연화 (high road flexibilization) 모델에서는 젠더 관계가 재설정되면서 근무시간 조정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일자리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이러한 선택을 남녀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개념화.
- ▶ Mutari & Figart(2000)는 완벽하게 고진로 유연화모델에 당 도한 국가는 아직 없지만, 현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 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들이 전환중이라고 평가함.

### 참고문헌

- ▶ 최은영, 2005b, "일가족양립지원과 가치재로서의 보육의 이해", 한국사회복지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 최은영, 2009, "일-가족 양립을 통한 맞벌이가구 지원의 한국적 딜레마", □생활 과학연구논총□, 13(2), 2009.12, 17-35.
- ▶ 최은영, 2010,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양육수당의 문제점", 참여연대, □복지 동향미, 2010년 9월호.
- ▶ 최은영, 2017,"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 분야 토론문", 중앙일보 사회보장학회 공동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복지공약 평가토론회, 2017.4.13., 서울 대 아시아연구소.
- ▶ 최은영, 2019a,"서울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과제"서울특별시의회 정책토론회: 서울시 공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후과제는?, 2019.4.23., 서 울특별시의회.
- ▶ 최은영, 2019b."보육서비스 이용특성 및 서비스시스템 개편의 과제". □생활과학 연구논총□, 23(2), 2019, 8, 145-159.

## 참고문헌

- ▶ 최은영, 2019c."한국 아동·가족정책의 현주소와 한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2019.10.23. 프레지던트호텔. (일정취소로 미발표)
- ▶ 최은영, 2019d,"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모색". 사회보장정보원 제5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포럼. 2019.11.8.
- ▶ 최은영, 2020a, "양육지원체계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일생활균형과 부모시간을 활성화하는 양육친화적 돌봄사회로의 이동", 강동수 외.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6-01. pp.230-258.
- ▶ 최은영, 2020b, "보육정책 성찰적 재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품질향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2), 139-164.
- ▶ 홍승아·최인희·최진희·김영미·김지미·양난주·유은경·정재훈·최은영·김현진, 2016, □주요국의 가족정책 및 추진체계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참고문헌

- ▶ Gornick, Janet C., and Marcia K. Meyers, 2004, "Welfare regimes in relation to paid work and care" in Janet Giele and Elke Holst (eds.) *Changing Life Patterns in Western Industrial Societies*, Amsterdam: Elsevier Science Press, 45-67.
-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5, No.6. (Dec., 1977), 1099-1123.
- Herzberg, F., Mausner, B., and Snyderman, B, 1959,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John Wiley.
- ▶ ILO(2018) Executive Summary: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Geneva.
- Knapp, Martin, 1984, The Economics of Social Care. Houndmills, London: MacMillan.

## 참고문헌

- Mutari, E. and D. Figart, 2000, "The Social Implications of European Work Time Policies: promoting gender equity? Golden L. and D. Figart (eds), Working Time: International trends, theory, and policy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232-250.
- ▶ OECD, 2001, Starting Strong, Paris.
-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 OECD, 2012, Starting Strong III: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 OECD, 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 ▶ OECD, 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 지정토론 |

김 경 철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지정토론 1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 공동체 아카이브 구성

김 경 철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출생아 수와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최저를 기록하였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인구의 부족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실로 다양하지만,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유아교육 환경이 변화되어 기존 교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영·유아기 경험의 중요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저출산 등 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가 성장기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한 교육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출산은 기피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자녀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 즉,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유아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교육현장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책적 의지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보편화 및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의 한계와 여전히 높은 학부모의 비용부담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 개선,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되, 동시에 이를 내실화할 방안을함께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과 역할 조정이나 협력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아 수 감소로 인한 위기는 개별화된 교육과 다양성을 갖춘 일정 규모의 관계망을 통한 공동체형성을 토대로 유아교육과정과 학제 간 연계 교육에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 고학년을 아우르는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와 만족도수준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 아카이브 구축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 시대에 당면한 유아 수 감소를 개별화 교육의 기회로 받아들여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기회 평등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다문화, 특수교육대상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지원 부족 및 교육의 질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다문화 및 통합교육 기준안 마련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 교육기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앞으로 맞이할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 영·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영·유아놀이에 대한 과정적 평가,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예비교사 양성 때부터 연계되어 교사교육에서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국가의 보장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으나 인구 정책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출산 의지는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아 성취 욕구, 삶의 질과 같은 개인적 요인, 배우자 및 가족 역할분담의 가족적 요인, 생활 수준, 취업 고용의 불안, 일-가정양립, 양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 등이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의 작용 결과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 탄력적 근무여건과 같은 정책적 의미를 확대해가는 것과 함께 각분야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내실화된 학제별, 분야별 연구 협력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한국사회의 미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이야 한다.

### 지정토론 2

## 세대를 포용하는 교육·보육·돌봄의 실현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미래전략추진단장)

당면한 초 저출생의 추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심리적 기저로 내면화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으며, 이는 지난 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와 삶의 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인식과 방향성 전환의 노력이 담겼음은 알고 있다. 이번 육아정책연구소 심포지엄에서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간 3-5년단위로 추진된 유아교육의 정책과 저출산 기본계획이 어떻게 연계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고, 보육이 일가정양립 및 교육·보육·돌봄, 그리고 가족 정책의 설계에서 어떠한 경로를 가야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출생이수와 출산율의 하락을 다시 확인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성평등 관점은 젠더만의 이슈가 아닌, 세대 간, 지역 간을 아우르는 인권에 대한 포용적 접 근을 담고 있다(예: UNESCO, 2018). 돌봄에의 성평등 참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교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돌봄의 과정에 교직원/돌봄인력과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일 터(기업)의 참여와 이에 대한 개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의 정책이 서비스와 시간, 현금 지원의 균형 설계에서 나아가, 실제 수혜와 이용 과정에서 일-가정-육아(교육·보육·돌봄)의 경계와 구분으로 인한 소외와 쏠림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별 주체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부모는 기관에 있는 자녀의 하루 일과에 현재보다 더욱 참여하여 소통과 공유의 경험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기관과 직장, 지역사회는 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육아가 제공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와 이용에 머물지 않고, 일가

정 양립을 통해 확보한 시간 자원이 개별 주체(agency)와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과정적 질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위의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즉 육아의 과정이 가정내자녀양육, 유치원과 어린 이집, 돌봄교실의 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에 기반하되, 기업과 학교, 지역사회의 육아에의 참여와 공유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분절된 서비스 이용, 시간 지원에 대한 재탐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저출산 정책이 4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정책, 청소년 대상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과 문화적 공간의 마련과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부모로서 돌봄의 제공자이면서 장래에 돌봄서비스의 이용자로 옮겨가는, 그리고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제공자로 옮겨가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교육·보육·돌봄 정책으로서 생애주기 관점이 요구된다. 육이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공존의 개념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간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다는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국기와 사회가 이행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육아지원과 일가정양립 및 가족 정책으로, 과연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각지대와 소외 없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웰빙, 교육을 제공했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비용지원을 통한 방안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개별 주체의 행복(웰빙)과 역량,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그 과정에의 참여로 가는 정책의 실행과정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지향하는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강조와 맥을 같이하며, 양질의 과정과 공유된 사례, 미시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주제발표에서 논의한대로 육아정책의 공적 토대의 마련(공공성)은 양질의 확보와 함께 가아하며, ECEC(영유아 교육·보육)의 관점에서 격차 완화의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 주소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교육-보육-돌봄의 기본 인프라와 권리가 소외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세대에 제공되고 그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 제고의 전략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친다.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